



제목	한스 킹의 이슬람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시와진실
발행일	2012. 9. 11.
저자	한스 킹 손성현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264
ISBN 또는 ISSN	978-8990890405

내용 요약

이 책은 저자가 “우리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라는 표제로 기획한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유대교』(1991)와 『그리스도교』(1994)가 3부작을 이룬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도 없다.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도 없다. 종교에 대한 기초 연구 없이는 종교 간의 대화도 없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헌팅턴은 냉전 시대의 종식 이후 문명 간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스 킹은 헌팅턴이 개별 문화의 내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명들의 복잡다단한 역사적 맥락과 모호한 경계와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기존의 정치사적, 종교사적, 문화사적 접근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슬람교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슬람은 현재의 이슬람이 되었는가? 장차 이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를 염두에 둔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비무슬림이지만 이슬람의 약화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내적 갱신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이슬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영역인 샤리아와 인권, 국가와 종교, 폭력과 거룩한 전쟁, 이슬람 경제와 도덕, 이슬람과 일상 세계 등의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